

EDU-05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1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1. 청소년·청년의 첫 금융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?

- ☐ A.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- ☐ B.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
- ☐ C.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
- ☐ D.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

2.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?

- ☐ A. 현재 보이는 금액만
- ☐ B. 비용·위험·기한·보호·증거
- ☐ C. 광고 순위와 후기 수
- ☐ D. 친구가 선택한 상품

3.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?

- ☐ A. 기억해 둔다.
- ☐ B.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
- ☐ C. 계약서·설명·거래·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.
- ☐ D.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

4.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☐ A.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
- ☐ B.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
- ☐ C. 신청·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.
- ☐ D.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

5.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?

- ☐ A. 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
- ☐ B.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
- ☐ C.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·기한·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.
- ☐ D.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

EDU-05 사전·사후 공통평가 · 2/3

사전과 사후에 같은 역량을 확인하되, 답을 외우기보다 선택 이유를 적는다.

6. 사례 '통장과 신분증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·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.
- ☐ B.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.
- ☐ C.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7. 사례 '친구의 계정 대여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·경찰에 즉시 알린다.
- ☐ B.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.
- ☐ C.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8. 사례 '학자금과 생활비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학업 기간·상환 시작·월 부담·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.
- ☐ B.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.
- ☐ C.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9. 사례 '플랫폼 수입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매출·수수료·환불·세금 뭉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.
- ☐ B.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.
- ☐ C.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10. 사례 '첫 신용카드'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?

- ☐ A.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.
- ☐ B.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.
- ☐ C.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.
- ☐ D.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

EDU-05 정답과 해설 · 3/3

문항별 정답과 선택지 해설

1. 정답 A

- A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- C. 이 선택은 '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.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.

2. 정답 B

- A. 이 선택은 '현재 보이는 금액만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B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C. 이 선택은 '광고 순위와 후기 수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- D. 이 선택은 '친구가 선택한 상품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, 위험, 기한,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.

3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기억해 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B. 이 선택은 '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C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- D. 이 선택은 '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·상대·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.

4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C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·요건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.

5. 정답 C

- A. 이 선택은 '추가 차입·송금으로 시간을 번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- B. 이 선택은 '연락과 서류를 피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C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- D. 이 선택은 '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빠른 차단, 증거 보존,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.

6. 정답 A

- A.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.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·비밀번호·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.
- B. 이 선택은 '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.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·비밀번호·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.
- C. 이 선택은 '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.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·비밀번호·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.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·비밀번호·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.

7. 정답 A

- A.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.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·수사·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
- B. 이 선택은 '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.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·수사·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
- C. 이 선택은 '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.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·수사·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.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·수사·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

8. 정답 A

- A.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.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.
- B. 이 선택은 '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.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.
- C. 이 선택은 '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.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.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.

9. 정답 A

- A.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. 통신·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.

- B. 이 선택은 '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. 통신·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.
- C. 이 선택은 '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. 통신·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. 통신·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.

10. 정답 A

- A.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. 리볼빙·할부·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.
- B. 이 선택은 '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. 리볼빙·할부·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.
- C. 이 선택은 '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. 리볼빙·할부·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.
- D. 이 선택은 '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.'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·기한·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.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. 리볼빙·할부·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.